

***차경이론을 통해 본 랜드스케이프 건축과 전통건축에 나타난 자연도입기법

The Nature-Introducing Techniques in Landscape and Traditional Architecture through Borrowed Landscape

이영미* / Lee, Young-Mi
천득염** / Cheon, Deuk-Youm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introducing methods between Korea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dividing them into three; semantic methods, constructive methods and visual methods on the basis of architectural features deduced from Borrowed Landscape theory which is a typical nature-introducing theory in the orient. Through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 can explain the nature-introducing methods of Landscape Architecture by way of the method of the Borrowed Landscape which was frequently used by our ancestors for a long time to introduce nature in the course of building structures, and we can find several similarities between the Architecture of two fields of both different times and areas. It can be said to be meaningful for us to be able to confirm the contemporary value of Traditional nature-introducing method through the Borrowed Landscape theory.

However, we can find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in looking at nature. If the Landscape Architecture which emerged recently as a result of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nature, maintains the nature view of regarding nature and architecture as equal, the nature view of Traditional Architecture is essentially different in that it is humble and aims to return to nature. The most outstanding feature of nature-introducing way in Traditional Architecture obviously implies something different from the various architectural trends of 'nature-human', or 'nature-architecture' which appeared breaking the relation of dichotomy. It is the thinking that 'nature and human are continual', and 'human is part of nature'; that is, 'the humbleness to nature'.

키워드 : 전통건축, 랜드스케이프 건축, 자연도입방법, 차경, 내부의 풍경화

Keywords : Traditional Architecture, Landscape Architecture, The ways of Introducing Nature, Borrowed Landscape, Interior Landscap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건축은 자연을 극복함과 동시에 자연을 닮으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서양의 근대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자연은 극복의 대상이자 모방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에 따라 도시는 꾸준히 증가하는 건축물과 도로에 의해 점유되어가고 자연은 점차 파괴되어갔다.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형

성되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생태학적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그동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연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려는 건축적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서양에서 정복가능한 대상으로 여긴 자연에 대한 시각을 수정하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한 일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대두된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자연과 건축을 대등한 것으로 보고 자연의 유입이라는 건축적 구현방법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동양에서 자연에 대한 관심은 근대의 서양처럼 자연을 건축의 종속적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자연과 건축 그리고 인간과의 합일을 추구하는데 있어왔다. 이러한 동양 3국(한·중·일)의 계성(計成;1582-?)의 『원야(園冶)』¹⁾에

* 정회원, 전남대학교 바이오하우징사업단 Post-Doc, 공학박사

** 정회원,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바이오하우징연구사업단)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동양의 전통건축과 근대 자연관의 수정에 따라 등장하게 된 현대의 랜스케이프 건축이 보여주는 자연과 건축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유사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경관을 도입하는 기법의 비교연구를 통해 동·서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계성의 『원야(園冶)』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도입 이론인 ‘차경 이론’에서 도출한 자연도입기법이 랜스케이프 건축과 한국 전통건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비교함으로써 전통건축에 나타난 자연도입기법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12. 연구 대상

현대 건축에서 랜스케이프 개념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은 1980-90년대의 시기를 거치면서 최근에 대두된 현상이다. 다양한 지점에서 다발적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랜스케이프 건축²⁾으로 단정하기에는 모호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의적인 선정을 피하기 위해 랜스케이프 개념을 주제로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New Territories, New Landscapes』(1997) 전시회를 통해 발표된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그 중 ‘자연의 도입’과 관계있는 작품들을 주 연구대상으로 최종 선별하였다.

전통건축의 경우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자연의 도입’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축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보편적 사실이다. 그 중 누정건축은 자연의 조망이 건물의 주 기능이듯이 다른 건축 유형보다도 자연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건축 또한 인간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공간으로서 자연에 대한 조상들의 보편적 인식을 드러내준다. 따라서 ‘누정건축’과 ‘주거건축’을 통해 전통적인 자연도입방법의 보편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랜스케이프 건축		전통건축	
주거건축	공공건축	주거건축	누정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Villa Dall'Ava Two under one Roof 	<ul style="list-style-type: none"> Sculpture Museum Velodrome hall Bibliothèque Nationale Yokohama International Port Terminal Sandai Mediatheque Foundation Carr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동 양진당 안채 향단 안채 김동수가옥(마담/사랑채) 운조루(마담/대청) 관가정(대청) 연안김씨종택 마당 독락당 사랑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락당계정 남간정사 옥류각 초간정사 소쇄원

1) 원야는 한·중·일에서 전해지는 전통정원과 관련된 문헌 중에서도 조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정원이론서이다.(이유직, 원야에 나타난 계성의 원림조영이론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25권 제2호, 1997, pp.118-119)

2) 랜스케이프 건축의 개념은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현대의 랜스케이프 건축은 ‘조경건축’과 구별되며, 건축이 주변 환경을 배경으로 전락시키면서 독립적인 오브제로 보지 않고 주변 환경 속의 일부로써 작동하는 장치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한성희,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landscape 개념의 건축적 의미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2004, p.51 수정인용) 랜스케이프 개념은 현대도시를 해석하는 복합적이고 불확정성에 대한 유동적인 네트워크 코드로서 인식되며, 도시와 자연, 문화 등이 통합적인 의미로 정립된 건축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차경에 의한 자연경관 도입기법

2.1. 자연경관 도입기법

자연경관의 도입은 특정한 자연을 시각 대상물화 하기 위한 방법 또는 개념 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화된 공간연출을 위한 기법이다. 동양에서 자연경관에 대한 핵심적 개념이 대두된 것은 명대의 계성이 저술한 『원야(園冶)』(1634)에서이며, 이 책에서는 여러 유형의 자연경관기법을 제시³⁾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차경은 전통원림과 중국인들의 경관관 및 심미관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서 자연경관을 부지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관처리방법으로 활용⁴⁾되어 왔으며, 원림의 조성에 가장 중요⁵⁾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2.2. 차경의 개념

차경은 문자 그대로 경관을 빌어쓰는 것(借)이다. 이것은 가장 적게 인공을 가미하면서도 집밖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관을 집안으로 직접 끌어오지 않고 집안에서 조망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의도된 풍경의 조작이다.⁶⁾ 차경이란 말은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나 체계적인 논술이 시도된 것은 계성의 『원야(園冶)』이다. 계성은 차경은 ‘원림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 개념을 『원야(園冶)』 「홍조론」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차(借)는 원림이 비록 안팎의 구별이 있다하더라도 경관을 얻음에는 원근을 가리지 않고, 울타리 너머의 맑게 개인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 빼어난 모습이나 산 위의 절이 하늘 높이 솟아 있는 모습 등 시선이 닿는 데까지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속된 경관은 가려버리고 좋은 경관은 받아들이며, 집근처의 논밭까지도 아스라히 아름다운 경치가 되도록 조영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른바 교묘하게 체(體)를 얻는다(巧而得體)는 것이다.⁷⁾

2.3. 차경의 특성

(1) 차경의 원리

계성은 『원야(園冶)』의 「차경(借景)」편에서 차경의 기본 원리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시간성의 강조’이다. 계성은 원림을 조영하는 일에 정해진 격식은 없으나 사계절의 변화와 조화를 이루는 것⁸⁾인데

3) 자연에서 노닐며 즐기는 遊景, 자연경관을 인간 가까이 끌어오는 取景, 집밖의 자연경관과 거의 비슷하게 배끼는 방법인 寫景, 자연요소 중에서 형태가 좋거나 의미가 깊은 요소만 골라 꾸미는 選景, 실제 자연경관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규모를 축소하는 縮景, 자연경관의 의미를 추상화하거나 상징화하여 대신하는 방법인 臆景, 가장 적게 인공을 가미하며 경관을 빌어오는 借景 등이 있다.

4) 이유직, 계성의 원야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7, pp.35-56

5) 계성 저, 김성우·안대회 역, 원야, 예경, 1993, p.307

6) 배미경, 차경기법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2002, p.7

7) 興造論, 借者: 園雖別內外, 得景則無拘遠近, 晴巒聳秀, 紺宇凌空, 極日所至, 俗則屏之, 嘉則收之, 不分町疇, 盡爲煙景, 斯所謂巧而得體者也.

8) 계성 저, 김성우·안대회 역, op.cit., p.301

이를 이용하는 것이 팔괘의 방위를 가려 원림을 조영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차경에 '적합한 원림부지의 선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원야(園冶)』의 「상지(相地)」 편에 잘 나타나 있다. 사계의 경관을 차경하기 위해서 '원림의 터는 방향에 구애받지 않으며, 그 형세는 본래의 높낮이를 그대로 따른다⁹⁾라고 말하고 있으며, 문을 들어서기만 하면 원림의 정취가 느껴지게 하고 지형에 맞추어 경치를 얻는데, 혹 산림에 기대어 터를 잡기도 하고 강이나 호수와 통하는 곳에 터를 잡기도 한다.¹⁰⁾

셋째, 부지 내에서 차경에 '적합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표적 방법은 시점을 제고시킴으로써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일과 차경에 적합한 건물의 양식과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원야(園冶)』의 「원설(園說)」에서 "처마와 기둥은 높고 흰하며 창과 문은 넓적이 접해 있어, 넓디넓은 水景을 받아들이고 계절의 선명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거두어들인다"¹¹⁾라고 하였듯이 건축물은 감상자의 시선을 외부의 무한한 공간속 자연경물로 이어지게 하여, 바람, 해, 달, 산, 호수 등을 감상자 앞으로 끌어온다.

(2) 차경의 대상

차경의 대상은 통감각적이며 공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년 사시사철의 변화와 같은 시간적인 상황까지도 포괄한다. 이것은 차경이 意境¹²⁾의 구현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색채, 빛, 냄새, 춘하추동과 같은 자연계의 현상, 편액과 대련, 고적들이 지닌 의미 등이 주는 우의나 상징 등은 모두 의경을 형성하는 요소들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차경됨으로써 원림은 물리적 형태를 뛰어넘어 추억이나 연상작용까지도 불러일으킨다.¹³⁾

(3) 차경의 유형

『원야(園冶)』에 나타난 차경의 종류로는 遠借(먼곳의 경치를 차경함), 隣借(가까운 곳이 경물을 차경함), 仰借(높은 곳의 경물을 차경함), 俯借(낮은 곳의 경물을 차경함), 應時而借(때에 맞게 경물을 차경함)¹⁴⁾ 등 5가지가 있다. 원차와 인차, 양차, 부차는 공간적인 측면과 관련 있으며, 그 중 원차와 인차는 공간상의 거리에 따른 유형이며, 양차와 부차는 공간상의 시선의 시각 방향에 따라 구분된다. 한편 응시이차는 시간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는 기법이다. 이러한 차경 유형은 공간적·시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물을 하나의 고정된 시각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하나의 고정된 사물에만 국한해서 보는 관찰방식도 아니라는 점에서 자연과 건축을 고정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차경의 의의

차경은 원림 안팎에 존재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경관을 하나의 감각기관 앞으로 끌어당겨 오는 행위로서 차경을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체의 정감과 대상인 경관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일체가 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되는 것까지 개념의 영역을 확대시킨다. 이처럼 차경은 인공건축공간에서 자연을 느끼고 또한 인간 또는 건축이 자연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해준다. 결국 차경의 궁극적 의의는 자연경관의 도입을 통해 결국 주체와 객체, 허와 실, 그리고 유한에서 무한으로 나아가 감상자를 감동을 주는 의경의 경지로 이끄는 데 있다.

3. 차경 원리의 건축적 해석

진정한 차경은 자연경관 도입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 여기에서 건축과 자연을 주체와 객체, 오브제와 배경 사이에 존재하는 종속적 관계로 보지 않는 현대의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자연관과 인식적 기반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통건축과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나타난 자연경관도입기법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차경 이론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시간성의 강조', '적합한 부지 선정', '적합한 조건을 위한 시점 제고' 등의 세 가지 차경 원리를 건축적으로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3.1. 시간성의 강조

'시간성의 강조'에 나타난 차경 원리는 사계절의 변화와 통감각적인 공간적·시간적 요소들이 감상자와 설계자의 감정교류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것으로서 감상자의 심미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자연을 통해 얻는 물리적 환경보다 자연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를 더욱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적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특성을 나타낸다.

첫째, 시간성의 강조는 변화와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불안정적이며 불확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 중요시 여기는 차경 원리에 의해 건축은 자연과 같이 반응하고 계절에 따라 변화하며 그 자체를 상황에 맞게 변모시키는 '불확정적이고 역동적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둘째, 통감각적인 자연요소의 차경은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건축과 자연이

9) Ibid., p.53

10) 이유직, 중국원림의 차경이론 연구, 한국정원학회, 제16권 4호, 1998, p.37

11) 『원야』, 「원설」, 軒檻高爽, 戶虛納千頃之汪洋, 收四時之爛

12) 의경은 주관과 객관, 허와 실, 정과 경, 그리고 의와 경이 통일됨으로써 유한에서 무한으로 나아가 감상자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주는 예술경계이다. 의경은 당대에 이르러 탄생된 개념이지만 사상적 근원은 노자와 장자의 미학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3) 이유직, op.cit., p.41 수정인용

14) 계성 저, 김성우·안대희 역, op.cit., p.307

주체와 객체의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허물어뜨림으로써 '인식적 경계가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 적합한 부지의 선정

'적합한 부지의 선정'을 강조하는 차경 원리는 자연과 건축의 물리적인 조건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원야(園冶)』의 「상지(相地)」편에 더욱 잘 나타나 있는데, 相地란 부지의 환경과 경관의 외양적인 모습을 살펴 건물의 위치와 형식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깊은 관찰과 연구를 통해 잠재되어 있는 본질까지 파악하고 대상과 설계가의 정신세계가 합일함으로써 주·객관 일체의 심미상태에 이르는 것까지 포괄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건축에 자연을 도입하기 위해 주어진 자연 여건들을 고려하는 것은 '지형,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려는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둘째, 자연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차경 원리는 건축과 자연이 물리적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서 인간과 건축, 자연의 '물리적 경계의 소멸'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3. 적합한 조건의 확보

'차경에 적합한 조건의 확보'라는 차경 원리는 내부에서 외부의 자연을 감상하는 경우와 감상자가 이동하면서 건축 또는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을 중요시 하는 개념이다. 이때 차경은 양차, 인차, 부차, 원차 등의 시선점의 조작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것은 시지각을 통해 건축과 도시,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상들을 종합 판단함으로써 진정한 자연과의 관계성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를 '시각적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특성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첫째, 감상자의 시선을 외부의 무한한 공간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은 시선의 연장을 통해 건축 내부로 자연을 끌어오며, 결국 공간의 영역이 '맥락적으로 확장' 된다는 은유적인 의미를 지닌다. 둘째, 감상자의 유동적인 시점의 변화에 따른 경관을 중요시 한다는 것은 건축 내부에서 보는 경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 도시 속 자연풍경이 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건축의 풍경화'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3.4. 분석의 틀

이상 세 가지 차경 원리의 건축적 해석을 통해 도출한 자연 도입방법은 감상자의 심미적 조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적 방법'과 자연과 건축의 외적 조건을 강조하는 '물리적 방법', 감상자의 시각 조건을 강조하는 '시각적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차경 원리	내용	방법
시간성의 강조	감상자의 심미적 조건 강조	의미적 방법
적합한 부지 선정	자연과 건축의 외부 조건 강조	물리적 방법
적합한 조건 확보	감상자의 시각 조건 강조	시각적 방법

<그림 1> 차경 원리에 따른 자연도입 방법의 분류

<표 2> 차경이론의 건축적 해석과 자연도입방법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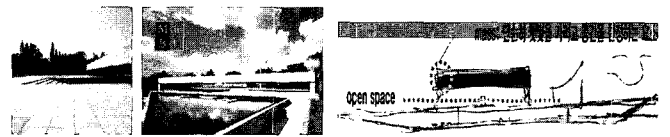
차경원리	방법	건축적 해석	특성
시간 변화	의미적	시간과 자연요소의 변화	불확정성
		건축과 자연의 의미의 합일	인식적 경계소멸
부지 선정	물리적	지형, 자연적 질서를 건축에 반영	자연 질서의 순응
		자연과 건축의 합일(주·객관일치)	물리적 경계소멸
시각 조건	시각적	시선의 연장을 통해 외부경관 차경	영역의 맥락적 확장
		건축과 자연의 일체, 건축의 풍경화	건축의 풍경화

4. 자연도입기법 비교 분석

4.1. 랜드스케이프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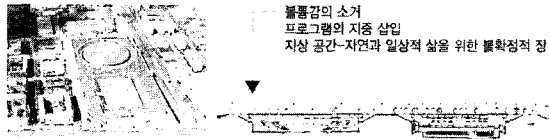
(1) 의미적 방법

Sculpture Museum(Paulo Mendes da Rocha)은 건물 일부가 지하정원 깊숙이 자리하고 있으며, 건물의 주된 매스는 햇빛을 가리고 공간의 상부를 덮어주어 아래의 공간을 한정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이 건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브젝트의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구축물이 랜드스케이프 개념에 의해 비워짐으로써 도시공간으로 치환되었다. 즉, 보이드 구축을 통해 건축물과 오픈스페이스의 대립적 관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으며 보이드 공간은 직접적인 자연뿐만 아니라 도시, 인간, 문화 등 인공화된 자연과 다양한 변화를 담아내는 불확정적 장소가 되고 있다.



<그림 2> Brazilian Sculpture Museum (Paulo Mendes da Rocha)

Velodrome and Swimming Pool in Berlin(Dominique Perrault)은 도시의 두 부분을 재구성하고 결합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프로젝트로서 수영장과 벨로드롬 경기장을 지하로 삽입하면서 지상의 볼륨을 소거시켰다. 자연환경을 보존 및 도입하면서 도시적인 맥락의 수용을 위해 프로그램을 지중으로 삽입하면서, 외부에서 인식되는 이곳은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이 되었으며, 자연과 일상적 삶의 변화, 도시, 인간 등의 은유적 자연을 차경하면서 불확정적인 장소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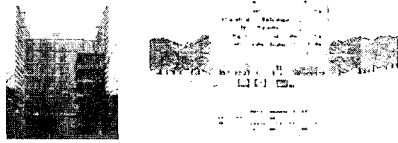
<그림 3> Velodrome Swimming Pool (Dominique Perrault)

Bibliothèque Nationale(Dominique Perrault)의 광장은 상징적인 장소의 경계를 설정하는 네 권의 열린 책과 같은 타워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Dominique Perrault가 건축은 자연과 같이 반응하고 계절에 따라 변화하며 그 자체를 상황에 맞게 변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던 것처럼 국립도서관의 광장은 자연의 변화를 수용하며 도시와 반응하는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다. 즉, 보이드 구축에 의해 생성된 공공공간은 자연과의 물리적 접촉과 변화를 제공하며 도시의 변화를 수용하려는 자연 도입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Bibliothèque Nationale (Dominique Perrault)

Cartier Foundation(Jean Nouvel)은 '유리'라는 투명한 재료와 보이드 공간을 여러 겹 겹쳐 배열함으로써 건물-식재-공공 공간사이의 단계를 구별짓고 있는 경계를 교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투명한 표피와 보이드에 의한 내·외부 연결은 공간의 정체성을 불확정적으로 만들고 사용자들에게 무엇이 주체이고 객체인지 혼란스러움을 안겨줌으로써 내·외부의 고정된 관계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관습적 인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해석과 정의¹⁵⁾를 요구한다.



<그림 5> Cartier Foundation (Jean Nouvel)

(2) 물리적 방법

FOA의 Yokohama International Port Terminal은 내부와 지붕의 물리적 경계를 구축적으로 연속시킴으로써 도시와 항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서로 연계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도시-인간-건축 등 각 영역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며 자연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도입되는 자연은 직설적인 자연이기보다는 건축에 대한 외부공간, 혹은 인공화된 자연, 도시적 풍경이라는 점에서 은유적인 자연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6> Yokohama International Port Terminal (FO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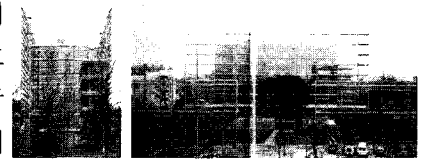
Florian Beigel의 Yokohama International Port Terminal은 사람들을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의 이동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계속 경계영역에 점유시키기 위해 스카йма트라는 경사면의 구조를 이용해서 대지를 구축적으로 연장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의 영역을 자연 속으로 침투시키고 있다. 이 또한 구축의 연속성을 통해 서로 다른 공간의 경계의 소멸을 추구하며 은유적인 자연을 도입하려는 차경의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7> Yokohama International Port Terminal(Florian Beigel)

(3) 시각적 방법

교외지역에 위치하여 도시의 풍경을 지향하고 있는 Villa Dall'Ava(Rem Koolhaas)는 소규모 주택이다. Villa Dall'Ava는 시각들에 의해 자연풍경을 회화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점을 중요시 여긴 차경 원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주택의 옥상 수영장은 집, 정원, 이웃, 도시적 스케일과 관련을 맺고 있다. 감상자의 시선을 먼 곳의 도시 풍경으로 이어지도록 조작된 시선점과 주변 자연경관을 수영장에 담는 방법에 의해 주택의 공간은 자연 혹은 도시영역으로 그 영역의 스케일이 맥락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Cartier Foundation(Jean Nouvel)은 풍경으로서의 건축을 추구하고 있다. 즉, 건물은 구축물이라기보다는 오픈스페이스와 투명한 표피에 의해 내부 공간과 자연을 매개해 주는 경계요소로 존재한다. 이를 통해 외부공간의 점유자는 외부공간을 내부처럼 편안하게 느끼고 내부공간에서는 이를 노출된 상황으로 인식함으로써 내·외부 공간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었으며, 결국 건축이 풍경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림 8> Cartier Foundation (Jean Nouvel)

Sendai Mediatheque(Toyo Ito)에서는 외피의 투명성을 통해 프로그램에 의한 건축의 풍경화를 추구하고 있다. Toyo Ito는 미디어테크라는 건물의 성격에 따라 프로그램을 '전자의 흐름'으로 생각하였으며, 구축물을 '자연과 연관된 원시적인 물체'로 보았다. 결국 이곳은 표피의 투명성을 통해 내부의 프로그램을 풍경화하면서 도시속의 풍경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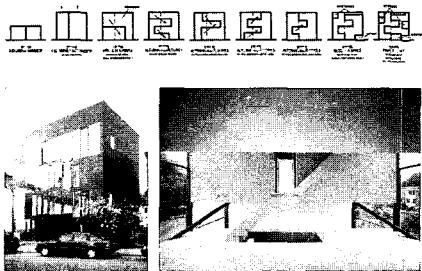


<그림 9> Sendai Mediatheque(Toyo Ito)

15)최순섭, 현대건축의 타자적 경계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6.04, p.183 수정인용

'건축의 풍경화'를 획득하는데 있어 위의 사례들이 표피의 투명성을 통해 내적논리를 풍경화하고자 하였다면, 이 예들과 달리 그 근거를 외부의 질서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MVRDV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의 Two under One Roof는 한 건물에 두 명의 건축주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망권, 정원, 옥상으로의 쉬운 진입을 원하는 두 세대 사이의 욕구를 타협하는 과정에서 평면과 같은 단면이 생성되었다. MVRDV가 보여주는 건물의 입면은 주변 경관과 중첩되면서 경관효과를 강조한다. Toyo Ito의 Mediatheque가 내적 프로그램을 자연으로 보고 이를 풍경화하기를 시도하였다면, 이 건물은 자연이 아닌 외적 질서를 건물 입면에 풍경화함으로써 도시 속 경관으로 존재하길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생성된 형태는 표면에 공간의 질서를 담을 수 있는 조각과 같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도시 속 풍경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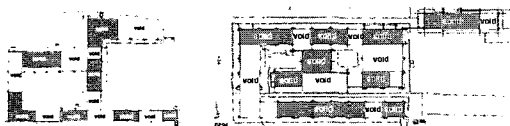


<그림 10> Two under One Roof 입면과 내부

4.2. 전통건축

(1) 의미적 방법

수평적이고 선형적인 칸의 연속적 연결에 의해 단위공간이 형성되고 이들의 연속에 의해 채가 형성되는 것은 전통건축에 나타나는 공통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양진당과 향단에서도 선형적인 입방체로서 매스(solid)와 보이드(void)가 반전되면서 수평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수평적인 단위공간의 연속적 결합은 자칫 폐쇄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대청과 같은 공적 공간의 프로그램을 비워버림(void)으로써 불투감을 소거시키며, 비워진 공간에 자연과 일상의 변화를 도입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비워진 공간은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공간의 확장이나 전용이 가능하기도 하며, 주변 자연환경과 결합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담아내는 불확정적 공간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림 11> 양진당(좌)과 향단(우)의 solid와 void의 반복

한편, 전통주거건축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마당은 중국과 일본의 마당과 차이가 있다. 이들의 경우 마당에 독자적인 정원을 조원하기 위해 수목과 화초를 식재하는 것에 비해 우리의 마당은 각 건물들 사이에 형성되어 사이공간 또는 매개공간



<그림 12> 김동수 가옥과 문조루의 마당

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따라 각각의 영역을 강조하는 위치에만 수목을 식재하고 나머지는 비워진 공간으로 남겨 놓는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 김동수 가옥이나 문조루(그림 12참조), 관가정의 마당(그림 13참조)은 흠다짐한 빈 터이며 특정한 장식 없이 사계절의 변화, 사람들의 움직임, 하늘, 바람, 소리 등을 담은 불확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관가정이나 향단, 독락당, 소쇄원(광풍각) 또한 공간을 비움으로써 불투이 소거됨에 따라 불확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비워진 공간의 투명성으로 인해 외부공간-내부공간-외부공간을 서로 매개하면서 내-외부 공간의 인식적인 경계를 소멸시키는 공통적 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비워진 공간 구성을 통한 자연도입기법은 이뿐만 아니라 전통건축 공간에 나타난 보편적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3> 관가정, 향단, 독락당, 소쇄원에 나타난 공간의 투명성

(2) 물리적 방법

관어대¹⁶⁾ 위에 기둥을 세운 후 마루를 깔고 난간을 두른 독락당내에 있는 계정은 자계에 펼쳐진 자연 경관을 즐기기 위해 회재 이언적이 건립한 정자로서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린 건축물이다. 계정은 지형의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자연경관을 도입하는 차경의 원리를 보여준다. 또한 정면에서 본 계정의 입면은 하부의 지형적 조건과 상부의 인공적 건축이 경계 없이 서로 하나가 되고 있다. 자연과 건축이 구축적인 연속성을 지니면서 서로의 경계가 없이 합일된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계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자연 지형을 적극 활용하여 건축된 우암 송시열의 남간정사¹⁷⁾가 있다. 남간정사는 뒤꼍 냉천이라는 계곡의 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대청 밑을 통하여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하였다. 따라서 건물의 대청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자연경관을 즐기고 순응하며,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 인공적 환경을 연출함으로써 자연을 적극 내부로 끌어들이고 있는 차경 원리를 엿볼 수 있는 훌륭한 예이다.

16) 관어대는 사산오대(四山五臺)중 하나를 일컫는다. 사산은 독락당 주위의 산들로 도덕산, 화개산, 자옥산, 무학산의 4개의 산을 일컫는다. 오대로는 관어대(觀魚臺:계정을 받치고 있는 시냇가의 반석), 영귀대(詠歸臺), 탁영대(濯纓臺), 정심대(澄心臺), 세심대(洗心臺)를 말한다.
17) 낮은 야산 기슭 숲이 우거진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는 남간정사(시도유형문화재 4호)는 앞면 4칸·옆면 2칸 규모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그림 14> 독락당 계정

<그림 15> 남간정사

동춘당의 옥류각(1639년)¹⁸⁾도 자연을 끌어들이기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연지형에 순응하며 적극적으로 이를 도입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 위의 사례들과 유사하다. 주변 측대와 마루 밑의 기단으로 봤을 때 충분히 건물터를 만들 수 있음



<그림 16> 옥류각 밑으로 흐르는 계류

에도 의도적으로 계곡 위를 가로질러 건물을 위치시켜 옥류각이 계곡을 타고 같이 흐르는 것과 같은 형상을 연출하고 있다.

한편, 다음은 건축요소의 물리적 조작을 통해 자연과의 통합을 이루려는 기법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이다. 전통건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들어열개 문은 겨울철에는 문과 벽의 기능을 수행하고 여름철에는 들어 열어 놓음으로써 내부공간을



<그림 17> 소쇄원과 김동수기옥의 들어열개문

자연으로 확장하도록 유도해주는 장치이다.

(3) 시각적 방법

독락당의 사랑채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공간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하나는 담장 수평선의 단절을 통해 담 너머에 있는 자연을 차경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먼 곳의 경관을 단일 체험공간 내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원차와 같은 차경기법을 통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담장에 설치된 살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살창이 없었다면 담장 너머에 있는 하늘과 수목의 풍경만을 끌어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살창이라는 해법을 통



<그림 18> 독락당 내부공간과 담장의 살창

해서 전혀 볼 수 없었을 자계의 경관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래를 굽어보는 부차를 이용한 1차경기법이 적

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담장의 수평선을 통해 먼 곳의 자연 경관과 단일한 공간에 있는 공간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운조루 지붕의 용마루 선을 통해서도 경험 할 수 있다. 안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채들의 지붕이 형성하고 있는 수평선은 중간의 상을 제거하면서 먼 곳의 자연 경관은 안체에 있는 조망자의 시선에 포획되면서 주거 영역은 자연으로 무한히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그림 19> 운조루 지붕

있다. 이처럼 전통건축은 옛날부터 한정된 울타리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경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

경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지혜를 보여 왔다.

한편, 연안김씨종택의 경우처럼 마당 한가운데에 연못을 두거나 마당에 물확을 조경요소로 배치하여 경관을 끌어들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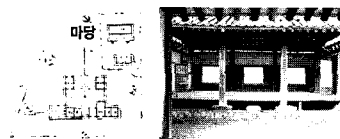


<그림 20> 연안김씨종택연못

방법도 자주 사용된다. 이때의 수공간은 거울처럼 주변풍경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공간의 영역을 맥락적으로 확장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위의 사례들이 건물의 내부에서 외부의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자연을 도입하고 있다면 다음 사례는 외부에서 바라볼 때 풍경화된 건축을 함께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가정에서는 대청의 투명성과 외부공간인 앞마당과 뒷마당의 자연풍경이 서로 중첩되면서 물질적 공간으로서의 대청이



<그림 21> 관가정의 대청의 투명성

아니라 한 폭의 풍경으로 지각되고 있다. 즉, 내부의 외부화, 건축의 풍경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옥류각, 남간정사, 소쇄원, 초간정사와 독락당의 계정 등 누정건축은 대부분 자연의 조망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내부 공간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점의 조작을 통해 자연경관을 도입하려는 기법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간정사의 경우 대청 아래 흐르는 수공간과 송림을, 계정은 자계의 수공간과 숲의 풍경을 시선점의 조작에 의해 끌어들이므로써 영역을 자연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또한, 외부에서 초간정사나 계정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건물이 주변의 자연과 연속된 풍경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물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던 자연과 건축의 구축적 연속성이 자연과 건축이 일체가 되어 건물이 하나의 풍경으로 지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조상들은 이곳에서 자연을 조망하면서 자신을 수양하고자 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주변의 자연과 일체화 되어 자연으로 귀의하려는 겸허한 자세를 건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2> 초간정사 내부(좌와 외부(우)



<그림 23> 계정의 내부(좌와 외부(우)

18) 옥류각(충남유형문화재 7호)은 1639년 동춘당 송준길이 대전시 비래동 응봉산 아래 계곡에 학문을 연마하기 위하여 세운 누정형식의 건물이다.

4.3. 종합 분석

지금까지 동양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이론인 차경 이론에서 도출된 건축적 특성을 바탕으로 현대의 랜드스케이프 건축과 전통건축에 나타난 자연도입기법을 살펴보았다. 차경 원리에서 도출한 자연도입기법은 '의미적 방법', '물리적 방법', '시각적 방법' 등 3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건축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의미적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간성의 강조'라는 차경 원리를 '의미적 방법'으로 해석하였으며 세부적인 특성으로 ①불확정성과 ②경계소멸에 의한 합일을 들 수 있다.

<표 3> 의미적 측면에서 본 자연도입기법

분류	사 례	개념의 구현 방법	자연도입기법	
			기법	특성
랜드스케이프 건축	Sculpture Museum	·매스(solid)와 오픈스페이스(void)의 대립을 통해 도시와 자연을 침투하며 다양한 변화를 담음	·보이드 구축	·불확정성
	Velodrome hall	·지상을 열린 공간으로 비움으로써 자연과 다양한 일상을 담음	·보이드 구축	·불확정성
	Bibliothèque Nationale	·프로그램을 지중으로 삽입하여 볼륨감 소거	·볼륨 소거	·불확정성
		·광장을 비움으로써 사람들의 행위와 도시, 자연의 변화를 수용	·보이드 구축	·불확정성
Foundation Cartier	·오픈스페이스와 투명한 외피의 중첩에 의해 내외부의 영역성의 불확정성 내포	·보이드 구축	·불확정성	
	·내부와 외부의 경계소멸을 통해 공간의 재정의	·투명성	·경계소멸	
전통 건축	안동 양진당	·void와 solid의 교차반복에 의해 수평적 볼륨감 소거	·보이드 구축	·불확정성
		·마당을 비움으로써 자연경관과 일상의 변화를 차경	·볼륨 소거	·불확정성
	향단	·void와 solid의 교차반복에 의해 수평적 볼륨감 소거	·보이드 구축	·불확정성
		·마당을 비움으로써 자연경관과 일상의 변화를 차경	·볼륨 소거	·경계소멸
	김동수 기옥	·대청의 투명성을 통해 내외부공간의 경계소멸	·투명성	·경계소멸
		·마당을 비움으로써 자연경관과 일상의 변화를 차경	·보이드 구축	·불확정성
운조루	·프로그램을 비움으로써 자연, 일상의 변화를 차경	·볼륨 소거	·경계소멸	
	관가정	·void와 solid의 교차반복에 의해 수평적 볼륨감 소거	·보이드 구축	·불확정성
·마당을 비움으로써 자연경관과 일상의 변화를 차경		·볼륨 소거	·불확정성	
·대청의 볼륨을 소거하여 공간의 불확정성 유도		·볼륨 소거	·불확정성	
독락당 (사랑채)	·대청의 투명성을 통해 내외부공간의 경계소멸	·투명성	·경계소멸	
	·마당을 비움으로써 자연경관과 일상의 변화를 차경	·보이드 구축	·불확정성	
소쇄원	·공간의 볼륨을 소거하여 공간의 불확정성 유도	·볼륨 소거	·불확정성	
	·프로그램을 비움으로써 자연, 일상의 변화를 차경	·투명성	·경계소멸	

'시간의 변화'에서 유추된 '불확정성'은 랜드스케이프 건축과 전통건축 대부분 '보이드의 구축'과 이를 통한 '볼륨의 소거'에 의해 이루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모두 인공적 건축에 자연과 도시의 풍경 등 변화하는 불확정적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보이드 공간의 창출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

다. 한편, '자연과 건축, 주체와 객체의 경계소멸'은 내·외부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적인 재정의의 유도하려는 공통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경우 '외피와 공간의 투명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통건축은 비움으로써 볼륨이 소거된 '내부공간의 투명성'을 통해 내부-외부-내부를 통합하는 기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 물리적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적합한 부지의 선정'이라는 차경의 원리를 '물리적 방법'으로 해석하였으며 세부적인 특성으로는 ①자연질서의 고려와 ②건축과 자연의 경계 소멸에 의한 합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랜드스케이프 건축과 전통건축에서 건축, 자연, 도시의 물리적 경계를 허물며 연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불리한 자연지형을 적극 이용하여 경관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전통건축의 자연도입기법이 자연의 순수한 상태를 적극 활용하는 직설적 방법이라면,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건축적 요소들의 물리적인 접합과 바다판의 연장에 의한 물리적인 연속성을 통해 인공화된 자연과 도시, 문화를 연결하는 은유적 방법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표 4> 물리적 측면에서 본 자연도입기법

분류	사 례	개념의 구현 방법	자연도입기법	
			기법	특성
랜드스케이프 건축	Yokohama (FOA)	·바닥, 천장, 벽 등의 접합을 통해 경계소멸을 추구하며, 대립적인 요소들을 연계	·구축의연속성	·경계소멸
	Yokohama (F.Beigel)	·도시와 자연, 국내와 국외의 경계의 대립은 경사로를 통해 대지를 자연으로 연장	·구축의연속성	·경계소멸
전통 건축	독락당 정	·자연 그대로의 지형위에 기둥을 세워 누각을 건립하여 자연과 일체를 추구	·지형을 이용	·자연질서순응
		·구축적 요소의 물리적 조작을 통해 경계가 소실되면서 자연과의 연속성 추구	·구축의연속성	·경계소멸
	독락당 사랑채	·물길을 가로질러 지형을 살리면서 건물을 건립하여 자연을 끌어들이	·지형을 이용	·자연질서순응
	남간정사	·계곡 위를 가로질러 건물을 건립하여 지형을 살리며 자연경관을 적극 끌어들이	·지형을 이용	·자연질서순응
	옥류각	·구축적 요소의 물리적 조작을 통해 경계가 소실되면서 자연과의 연속성 추구	·구축의연속성	·경계소멸
	김동수기옥 사랑채	·구축적 요소의 물리적 조작을 통해 경계가 소실되면서 자연과의 연속성 추구	·구축의연속성	·경계소멸

(3) 시각적 방법

'차경에 적합한 조건의 확보'라는 차경의 원리를 '시각적 방법'으로 재해석하였으며 세부적인 특성으로는 ①영역의 맥락적 확장, ②건축의 풍경화를 들 수 있다.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시각적 측면에서 랜드스케이프 건축과 전통건축이 보여주는 자연도입기법은 시선의 조작에 의해 근·원경의 자연과 도시의 풍경을 도입함으로써 내부공간의 영역을 물리적인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맥락적으로 공간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다. 한편, 외부에서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적 측면에서 자연도입기법은 건축물 스스로가 자연 속의 풍경이 되기 위해서 표피나 공간의 투명성을 사용하는 기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개념의 구현목적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랜드스케이프 건축이 시각적인 면에서 건물과 자연이 연속적인 풍경으로 보이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전통건축이 추구하는 건축의 풍경화는 시지각적 차원을 뛰어넘어 자연으로 건축과 인간이 귀의하고 합일되는 의경의 경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표 5> 시각적 측면에서 본 자연도입기법

분류	사 례	개념의 구현 방법	자연도입기법	
			기법	특성
랜드스케이프 건축	Villa Dall'Ava	·시각적 조작에 의해 먼 도시의 풍경을 끌어들이며 맥락적 확장 ·수영장을 통해 주변의 풍경을 담음	·시선의 조작	·맥락적 확장
	Foundation Cartier	·표피의 투명성을 통해 내-외부 공간 경계모호 ·내부의 외부공간화	·투명성	·건축의 풍경화
	Sendai Mediatheque	·내부프로그램을 자연으로 의인화하여 풍경화 ·표피의 투명성을 통해 내부를 드러냄	·투명성	·건축의 풍경화
	Two under one Roof	·외적 질서(프로그램)를 건물 표피에 조각하듯이 외부화 함으로써 건물을 풍경화	·프로그램노출	·건축의 풍경화
전통 건축	독락당 사랑채	·담장의 수평선을 통해 원경의 풍경을 끌어들이며 ·담장의 실창을 통해 수경관을 끌어들이며 ·내부공간의 볼륨감을 소개하여 비움으로써 외부-내부-외부 공간의 경계를 모호	·시선의 조작	·맥락적 확장 ·투명성 ·건축의 풍경화
	독락당계정	·내부에서 시선 처리에 의한 자연경관 차경	·시선의 조작	·맥락적 확장
		·건물과 자연의 연속성을 통해 자연과 건축 일체	·건축의 연속성	·건축의 풍경화
		·누정내부의 볼륨감을 소개하여 비움으로써 외부-내부-외부 공간의 경계를 모호	·투명성	·건축의 풍경화
	운조루	·지붕의 수평선을 통해 원경의 풍경을 끌어들이며	·시선의 조작	·맥락적 확장
	연암김씨종택	·마당에 있는 연못의 수공간을 이용하여 주변의 경치를 담아 자연을 끌어들이며	·시선의 조작	·맥락적 확장
	관가정	·내부공간(대청)의 볼륨감을 소개하여 비움으로써 외부-내부-외부 공간의 경계를 모호	·투명성	·건축의 풍경화
	초간정사	·내부에서 시선 처리에 의한 자연경관 차경	·시선의 조작	·맥락적 확장
		·외부에서는 주변과 연속된 풍경으로 일체화	·건축의 연속성	·건축의 풍경화
		·누정내부의 볼륨감을 소개하여 비움으로써 외부-내부-외부 공간의 경계를 모호	·투명성	·건축의 풍경화
옥류각	·내부에서 시선 처리에 의한 자연경관 차경	·시선의 조작	·맥락적 확장	
	·누정내부의 볼륨감을 소개하여 비움으로써 외부-내부-외부 공간의 경계를 모호	·투명성	·건축의 풍경화	
남간정사	·내부에서 시선 처리에 의한 자연경관 차경	·시선의 조작	·맥락적 확장	
소쇄원	·내부에서 시선 처리에 의한 자연경관 차경	·시선의 조작	·맥락적 확장	
	·누정내부의 볼륨감을 소개하여 비움으로써 외부-내부-외부 공간의 경계를 모호	·투명성	·건축의 풍경화	

(4) 소결

이상 3가지 방법에 따라 살펴본 세부적인 자연도입기법들을 랜드스케이프 건축과 전통건축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정리하

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차경이론에 따른 자연도입기법

유 형		의미적 방법			물리적 방법		시각적 방법				
건축적 특성		불확정성	경계 소멸	자연 질서 순응	경계 소멸	맥락 확장	건축의 풍경화				
시설 분류	자연도입기법 사례	보이드 구축	볼륨 소거	투명성	지형 이용	건축 연속성	시선 조작	투명성	프로그램노출	건축 연속성	
	랜드스케이프 건축	Sculpture Museum	●								
Velodrome hall		●	●								
Bibliothèque Nationale		●									
Foundation Cartier		●		●				●			
Yokohama(FOA)						●					
Yokohama(F.Beigel)						●					
Sendai Mediatheque								●	●		
전통 건축	Villa Dall'Ava						●				
	Two under one Roof								●		
	누정	독락당 계정	●	●	●	●	●	●	●		●
		남간정사				●		●			
		옥류각		●		●		●	●		
		초간정사		●			●	●	●		●
	주거	소쇄원	●	●	●		●	●	●		
		인동 양진당	●	●	●						
		향단	●	●	●		●				
		독락당(사랑채)	●	●	●		●	●	●		
김동수가옥		●	●	●		●		●			
운조루		●	●				●				
관가정	●	●	●		●		●				
연암김씨종택	●						●				

이를 통해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경우 3가지 방법 중 주로 개별적 방법을 통해 자연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통건축의 경우 각 사례마다 특정한 방법에 국한해서 자연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방법과 세부적 기법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자연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랜드스케이프 건축과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조들이 오랜 세월 건물을 조영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도입하기 위해 이용한 '차경 이론'을 의미적 방법, 물리적 방법, 시각적 방법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였으며, 여기에서 도출된 세부적인 특성에 따라 랜드스케이프 건축과 전통건축에 나타난 자연도입기법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의미적 방법에 의해 나타난 자연도입기법들은 '보이드의 구축', '볼륨소거', '투명성' 등 세 가지로 나타났으며, 랜드스케이프 건축과 전통건축 모두 다양한 기법들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보이드의 구축'을 통해 자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물리적 방법에 의해 나타난 자연도입기법들은 '지형의 이용', '구축의 연속성'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주로 '구축의 연속성'을 통해 은유적인 자연을 도입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전통건축의 경우 두 가지 기법이 고루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형의 이용'이 많은 이유는 전통건축의 경우 자연을 감상하기 위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였고 그 주어진 자연지형에 순응하며 건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3) 시각적 방법에 의해 나타난 자연도입기법들은 '시선의 조작', '투명성', '프로그램의 노출', '구축의 연속성' 등이 있다. '시선의 조작' 과 '투명성'의 기법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법이나 전통건축에서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프로그램 노출'을 통한 건축의 풍경화는 랜드스케이프 건축에서만 나타나고 있으며, '구축의 연속성'을 통해 자연과 건축이 일체가 되어 풍경화되는 기법은 전통건축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

이상으로 '차경 이론'을 통해 랜드스케이프 건축과 전통건축에 나타난 자연도입기법을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차경'에 의한 전통적인 자연도입기법의 현대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고 있는 두 분야의 건축에서 자연을 도입하려는 건축적 기법의 공통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자연을 도입하기 위한 기법들이 개별적인 방법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전통건축은 세 가지 분류방법과 기법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자연을 도입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전통건축과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에서야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등장하게 된 랜드스케이프 건축이 보여주는 자연관이 자연과 건축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입장이라면, 전통건축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겸허하고 자연에 귀의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고는 오랜 세월 자연과 인간을 연속선상에서 파악하였던 전통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말하려는 것은 전통건축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기엔 많은 선행 연구자들이 전통건축의 가치를 알리는 시도를 해왔기에 이는 이미 증명된 명제이기도 하다. 최근 거대한 이념으로 포장되어 현대건축에서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건축적 개념이 우리 조상의 삶 속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고 있다.

'자연과 인간은 연속'적이며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우리 전통건축에 나타난 자연도입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인간', '자연-건축'의 이분법적 관계를 깨뜨리며 나타난 현대의 다양한 건축적 경향과 분명 다른 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자연에 대한 겸허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Fritjof Capra, The Web of Life, May 1998
2. Manuel Gausa, Land Arch, Quaderns, 1997
3. Florian Beigel and Philip Chistou, Epic Landscape, New Territories, New Landscape, Actar, 1997
4. Eduard Bru, The Long-Distance Gaze, New Territories, New Landscapes, Actar, 1997
5. 김진균, 시각구조분석에 의한 건축공간의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4.2
6. 박경아, 지형을 이용한 건축의 공간화 방법, 홍익대 석사논문, 2003
7. 배미경, 차경기법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2002
8. 배우영,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나타난 경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4
9. 심우경, 한국전통조경의 특성, 건축역사학회, 제13권 2호, 2004.6
10. 오창권, 생태학적 패러다임의 건축적 적용에 관한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96
11. 이영미, 한국전통건축과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나타난 생태학적 특성, 건축역사학회, 제14권 4호, 2005.12
12. 이유직, 계성의 원야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7
13. 이유직, 중국원림의 차경이론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제16권 4호, 1998
14. 임연수, 땅의 속성을 반영하는 지형적 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2
15. 전상규, 자연과의 관계를 통한 랜드스케이프 경향의 건축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4
16. 홍지학, 현대 건축에 나타난 랜드스케이프 개념의 층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3
17. 한성희,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landscape 개념의 건축적 의미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2004

<접수 : 2007. 2. 28>